

# 광양시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인기 좋다

### 지난달 65세 이상 9만3천건 이용...시행 한 달만에 2.7배 늘어 '복지교통카드' 횡수 제한없이 탑승...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광양시가 '65세 이상 무료 시내버스' 제도를 시행한 한 달간 65세 이상 인구의 4배에 달하는 9만 3000건 넘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 65세 이상 버스 탑승 건수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광양시는 추산했다.

13일 광양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내버스 복지카드' (어르신 복지교통카드·사진)를 발급한 지난 11월 한 달간 65세 이상 탑승 건수는 9만3250건으로 집계됐다.

광양시는 전달 탑승 건수를 3만4700여 건으로

추산하고, 제도를 시행한 뒤 65세 이상 시내버스 이용 건수가 한 달 새 2.7배 늘어난 것으로 봤다.

광양시는 65세 이상 인구 2만3000명의 65.2%에 달하는 1만5000명에게 '어르신 복지교통카드'를 발급했다.

올해말까지는 2억원을, 내년에는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어르신 복지교통카드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전남 시 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달 1일부터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탑승제'를 시행해왔



다. 어르신들의 교통안전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민선 8기 핵심 공약의 하나로 복지교통카드 제도를 마련했다.

또 대중교통 활성화로 인한 교통 체증 감소와 탄소 저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고령자 사회

적 활동 증가 등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어르신 복지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주)광양교통 시내버스를 횡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어르신 복지교통카드는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순천교통(77번·777번), 여수여객(610번) 등은 무료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성수 광양시 교통과장은 "사업 시행 한 달 만에 어르신 탑승 건수가 2.7배로 급증하는 등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를 보여 사업 목적과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교통복지를 향상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 구례군 22일 마을 순회

구례군이 오는 22일 '찾아가는 2024년 지적 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연다.

주민 설명회는 이날 오전 9-10시 문척면 전천마을 회관, 오후 3-4시 동산마을 회관, 병방마을 회관 오후 4시 30분-5시 30분 열린다.

앞서 구례군은 13일 구례읍 봉동2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실시계획 수립 내용,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사업 대상 지구는 구례읍 봉동2구마을, 동산마을, 병방마을, 문척면 전천·월평마을 일원 등 총 4개 지구이다. 규모는 1606필지 54만5000㎡이다.

해당 지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합합 지역이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이 경계분쟁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다.

구례군은 토지 소유자 총수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남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게 된다. 토지 현황조사와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경계 설정 협의를 거쳐 새로운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적 재조사로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여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태 기자 lit@

# 순천시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내년 3월 마무리

### 전남 동부권 의료 지표 분석 '맞춤 공공의료 추진'

순천시가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다.

순천시는 지난 12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순천을 포함한 전남 동부권의 의료 지표를 분석해 중장기적인 '맞춤형 공공의료' 추진 전략과 목표, 연차별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연구용역은 내년 3월 완료될 예정이다.

용역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날 중간 보고회에서 전남 동부권의 의료체계 분석 결과와 심뇌혈관질환, 중증 응급의료, 산모·신생아·소아 등 필수 의료 분야 교류망 구축 방안 등에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주도의 하달식 의료 정책 방향

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의료기관, 시민이 함께 응급 의료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

순천시 자료(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임준)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5개년간 70개 중진료권별 급성기 입원자료를 분석해보니 순천시의 입원사망비가 70곳 가운데 27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비가 낮은 지역은 500병상 규모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된 종합병원 이용 비율이 높았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잘 갖춰진 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중간보고회에 나온 의견들을 잘 반영해 체계적인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시장 노관규·왼쪽 세 번째)가 지난 12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어 맞춤형 공공의료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71년** 광주일보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16년째 교향악 연주하는 교사들

### 여수전남교원오케스트라, 19일 송년공연...GS칼텍스 예울마루

협치 교사로 구성된 교향악단이 16년째 연말 송년 공연을 펼쳐 눈길을 끈다.

여수전남교원오케스트라(단장 서금열)는 19일 오후 7시 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여수바다를 물들일 송년 특집'으로 제15회 정기 연주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초·중·고 교사들이 주축인 여수전남교원오케스트라는 200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결성됐다. 올해까지 16년째 매년 12월 송년 음악회를 열어 갈고닦은 실력을 여수·전남 시민들과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선보였다.

교사 단원들은 아이들을 가르친 후 시간을 쪼개 연습해 오면서 송년 특집 연주회를 마련해 무

대에서 선보이고 있다.

공연은 '열정 그리고 회복'을 주제로 1부에서는 '열정'으로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과 바하의 관현악모음곡 2번 등 순수음악, 2부에는 '회복'으로 영화음악 슈타워즈 외 메모리, 가을 편지 등 편하고 즐거운 곡들이 연주된다.

연주는 손호모 상임지휘자가 이끌며 이탈리아 파도바국제콩쿠르를 입상하고 국립 서울 시립 오페라단에서 주역으로 활동하는 소프라노 정혜옥 교수가 관객을 만난다.

또 여수 출신으로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시내

약 축제 차세대 연주자로 선정된 플루티스트 심고는 씨를 초청해 공연을 한층 다채롭게 빛낸다.

주점속 운영위원장(도원초 교장)은 "교육과 일상에 분주한 전남 교직원들이 아이들을 행복한 감성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음악적 감성 교육력을 기르는 일, 그리고 단원 개인의 건강한 성장과 삶을 추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여수교육지원청은 매주 2회 교향악단의 연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원 개인의 건강한 성장과 삶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김철우 보성군수와 보육 관련 직원들이 보육정책 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기념한 촬영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 보성군, 복지부 보육정책 평가 우수기관 선정

### 공보육 확충·어린이집 안전 관리 분야 높게 평가

보성군이 '2023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보육정책 분야에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육정책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도와 정부 예산관리 및 집행 기여도, 공보육 확충 실적,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적정 관리, 어린이집 질 및 안전관리 추진 실적 등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선정한다.

보성군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과 취약 보육 실시 노력 등 안정적인 공보육 확충, 통학 차량 지

원, 급식·위생 점검, 친환경 식재료 구매 지원, 안전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등 어린이집 안전 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또 지역 평가인증 및 A·B등급 어린이집 비율 100%, 부모 모니터링 참여율 100%, 열린 어린이집 선정 비율 91%로 어린이집 관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앞으로도 보육 교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성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 첫번째 영화 만든 초등생들

### 곡성 삼기초 학생들이 '1회 달팽이 영화제' 개최...도교육청 '작은학교영화 만들기' 지원

곡성 삼기초교 학생들이 '1회 달팽이 영화제'를 최근 열어 곡성작은영화관에서 직접 만든 영화를 주민들과 함께 관람했다.

달팽이 영화제는 상영작은 '꿈꾸는 새싹' 제작에는 유치원생과 삼기초교 1-3년생이 참여했다.

이 밖에도 자율동아리 영화부가 만든 '삼기다큐190일 신나는 학교', 4-6년생이 참여한 '말할

수 없는 비밀' 등을 상영했다.

삼기초는 지난 5월부터 전남도교육청 지원을 받아 '작은학교영화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만들고 감독과 배우, 촬영, 소품 담당 등 역할을 나눠 협업했다.

영화제에서 영상을 상영한 뒤 학생·학부모와 삼기초 영화부는 서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

다.

신미정 삼기초 교장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화를 이렇게 응원과 영상장비가 갖춰진 곳에서, 여러 학부모와 우리 고장 곡성작은영화관에서 보니 의미 있었다"며 "아이들에게 영화 관련 진로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곡성 삼기초교 학생들이 곡성작은영화관에서 '1회 달팽이 영화제'를 열고 직접 만든 영상을 상영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삼기초 제공>

# 여수시 CCTV 2996대 첨단기술로 본다

### 공모사업 선정...관제 업무 획기적 개선 기대

여수시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운영하는 폐쇄회로(CC)TV 2996대의 효율적인 관제가 가능해졌다.

여수시는 행정안전부의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추진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분야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이 사업을 마련했다.

총 6개 분야에 여수시를 포함한 5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여수시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분야에 선정돼 '관제 CCTV 영상 우선 관할'과 '인공지능

(AI) 영상 분석'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총사업비 8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사업을 통해 적용하는 기술은 사람, 차량 등 주요 관제 대상 영상만 표출하고 범죄, 실종, 무단 투기, 화재 등 설정된 조건에 따라 영상을 선별할 수 있다.

여수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가동하는 CCTV는 모두 2996대다. 1인당 관제 대수는 400여 대로, 행안부가 제시한 적정 관제 대수 50대의 8배에 달한다. 내년에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면 관제 업무 과중과 육안 관제의 한계를 해결할 것으로 여수시 측은 내다봤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